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서울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제 목	“학생인권 침해 학교 항의방문 결과 발표 및 교육청 공식 민원 제출” 보도자료
발신일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문 의	담당자 : ☎ 010-6899-6946(어쓰) // ✉ sshr0126@gmail.com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조레넷)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입니다.

2. 서울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월 26일 공포/시행된 지 118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 100일이 넘게 지난 지금,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학생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조례 시행 100일을 맞아 조레넷에서 진행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설명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한 두발 규제,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자의적인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강제 야간 자율학습, 부당한 종교 강요, 학생의 자치와 참여에 대한 간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적어 준 학교 내 학생인권 침해 경험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 이 뿐 아니라, 저희 조레넷과 서울본부를 포함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여러 시민단체들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학교 내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 학교들 중 그 사안이 심각한 학교들에 대해 저희 조레넷과 서울본부에서는 5월 23일 수요일, 직접 항의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많은 학생인권 침해 학교들이 있었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 선도부와 교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지품검사와 썬크림조차 바르지 못하도록 학생의 용모를 심하게 규제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대진 디자인고등학교’(서울 강남구 소재)와 학생회가 민주적으로 진행하려 한 설문조사조차 부당하게 가로막으며 학생의 정당한 자치와 참여를 방해하고, 학생의 두발을 심하게 규제하며 교과부와 교육청 모두가 이미 금지한 체벌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의 제보가 들어온 ‘남대문중학교’(서울 성북구 소재)를 대상으로 항의 방문을 기획, 5월 22일 화요일에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4. 5월 23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남대문중학교 등곳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홍보 캠페인을 진행, 서울 학생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한 후 오전 9시부터 남대문중학교 학교장과 면담을 진행, 조레넷이 제보 받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브리핑한 후 학교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 우리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며, 학생 인권에는 동의 하지만 현재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송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실효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교과부의 그러한 행태가 학교 현장에 큰 혼란만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학생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 관계를 학교 내에서 확인한 후 학생인권 보장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빠르게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5. 그러나 대진 디자인고등학교는 면담 요청 공문에서 요청한 면담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보내주지 않아, 결국 면담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학교의 불성실한 태도로 오늘 면담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학교 측과 다시 한 번 날짜를 조정하여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대표적으로 두 학교에 항의방문을 진행하려 예정했고, 그 중 한 학교에서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단 남대문중학교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했듯이 서울의 수많은 학교에서 아직까지도 학생인권 침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5월 23일 수요일, 조레넷과 서울본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여러 시민/사회/청소년 단체에 들어온 학생인권 침해 제보들을 모두 모아 조레넷이 그 대표로 <서울 내 학생인권 침해 학교에 대한 공식 민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7. 이번 공식 민원 제출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 소재 학교에 대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정 요구와 감시/감독, 학생인권조례 준수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서울 소재 학교들은 어서 빨리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조레넷과 서울 본부는 이 과정을 꾸준히 지켜볼 것이며, 오늘 학교의 불성실한 대처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대진 디자인고등학교를 포함해 학교들에 항의 방문 진행 및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위반과 학생인권 침해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8. 아래에 조레넷에서 제출한 서울시교육청 공식 민원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서울시 교육청 민원 신청서 (3p)

민원신청서

민원인(단체)	서울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	수신인	서울시 교육감
		참조	책임교육과
연락처	sshr0126@gmail.com // 담당자 : 어쓰 010-6899-6946		
주소			

제목: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과 그에 대한 조치 및
서울 소재 학교의 학생인권조례 준수/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관리/감독 요청

내용: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0일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조례에서 금지한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조레넷)에서는 조례 시행 100일을 맞아 서울 학생인권
조례 실태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학교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나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두발복장
규제, 체벌을 포함한 물리적/언어적 폭력, 자의적인 소지품 검사/압수, 강제야자,
종교 강요, 차별, 학생의 표현의 자유 규제, 학생의 참여와 자치 규제 등의 인권침
해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조례에 준하도록 교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사례 또한 학교에서 일어
나는 인권침해를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저희 조레넷을 포함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청소년 인
권행동 아수나로 등 여러 시민단체들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내 학생인권 침해 상황들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학
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한 학교장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내용 또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위반입니다. **함께 제출하는 인권 침해 사
례를 토대로 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에 대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서울 소재 학교의 서
울학생인권조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사실 조사 과정에서 그를 제보한 학생, 학부모의 정
보가 누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2. 5. 23.